중국의 중장기(2026~2035) 농산물 수급 전망: 식량, 채소, 과일

지 성 태*

1. 서론

2014년부터 중국은 매년 4월 정기적으로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의 농업전망보고를 발표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올해 4월 20일 발표한 "중국농업전망보고(2026~2035)(이하 '전망보고')"를 요약·정리하였다. 전망보고는 20종(류)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2025년 시장상황을 종합하고, 2026년, 2030년과 2035년 등 중요 시점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하였고,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업전망에서는 국가통계국,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자연자원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기상국 등의 중국 정부부문이 공개한 통계와 모니터링 데이터는 물론, UN, FAO, OECD, World Bank, G20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등의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에서 공표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전망보고의 추정치는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에서 개발한 중국 농산물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China Agricultural Monitoring and Early-warning System, CAM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품종, 다수의 시장, 동태적이고 개방된 모형이 복잡하게 결합되었고,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수학계획모형(Mathematical Planning Model), 계량경제모형, 빅데이터 분석모형, 인공지능모형 등이 포함되었고, 연관성, 통일성, 균형성 등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조기경보와 전망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CAMES는 거

*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부교수(dongsimjst@snu.ac.kr).
본 고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발간한 보고서 "중국농업전망보고(2026~2035)" 중 주요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됨.

시경제 조건(경제발전, 인구 변화, 도시화율,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소비가격지수, 위안화 환율, 국제원유가격 등)과 농업생산 조건(농업인력자원, 경지자원, 수자원, 농업 과학기술, 농업정책 등)을 가정하고 있다.

생산 전망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하 단수)과 파종면적 예측에 근거했고, 소비 전망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감모(loss) 등 용도별 소비 예측에 근거했고, 무역 전망은 농산물 국제가격, 국제 운송비, 국내 수요, 기저(Basis), 환율, 무역정책 등 요인에 근거했으며, 가격 전망은 다수의 품종과 시장의 수급 균형모형에 근거하여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농업전망은 식량 전체, 벼(쌀), 밀, 옥수수, 대두, 식물성 식용유와 유지작물, 면화, 당류, 채소, 감자, 과일, 육류 전체, 돼지고기, 가금육, 소고기·양고기, 가금알, 유제품, 수산물, 사료를 대상으로 하고, 본 고에서는 식량 전체, 벼, 밀, 옥수수, 대두, 채소, 감자, 과일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나머지 품목(류)은 별도로 정리할 예정이다.

2. 식량

2025년 식량 생산량은 7억 1,4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소비량은 8.32억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수입량은 1억 4,191만 톤(조곡을 정곡으로 환산 시 70%의 수율 적용)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고, 수출량은 40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식량 총 공급량은 85,276만 톤이었고, CAMES 식량 가격지수는 100.39로 전년 대비 3.22p 하락했다. 향후 10년간 식량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소비량은 전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후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량은 계속 감소하고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식량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11,941	11,940	0.0	11,953	0.3	11,973	0.04
	단수(kg/ha)	5,985	6,000	0.2	6,135	3.6	6,285	0.6
	생산량	71,488	71,633	0.2	73,271	3.8	75,322	0.7
소비	총소비량	83,152	83,009	0.2	84,080	1.4	84,080	0.1
	- 식용	27,465	27,331	-0.5	26,986	-2.5	26,709	-0.4
	- 사료용	38,522	38,400	-0.3	38,950	2.5	38,845	0.2
	- 가공용	12,759	12,882	1.0	13,944	11.3	14,668	1.6
	- 기타·손실	4,406	4,396	-0.2	4,199	-8.6	3,858	-1.7
무역	수입	14,191	14,208	0.1	13,497	-12.4	11,490	-2.9
	수출	403	517	28.2	644	91.1	831	9.4
재고량		2,124	2,315	9.0	2,045	-23.9	1,902	-3.4

주 1) 식량 작물은 주요 곡물류(벼, 밀, 옥수수), 작곡류(수수, 기장, 보리, 귀리, 메밀 등), 두류(대두, 녹두, 팥 등), 서류(감자, 고구마)를 포함함.
2) 기준연도 값은 2023~2025년 평균치를 나타냄.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2.1. 생산 전망

식량 파종면적은 중국의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제도인 레드라인(1.2억 ha)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량 파종면적은 1억 1,940만 ha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3% 증가한 1억 1,953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0.04% 증가한 1억 1,973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표준 농지 건설, 우량종자 보급 확대, 스마트 농기계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식량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량 단수는 6,000kg/ha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6% 증가한 6,135kg/ha, 2035년에는 연평균 0.6% 증가한 6,285kg/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파종면적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단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량 생산량은 7억 1,6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8% 증가한 7억 3,271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7% 증가한 7억 5,32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2. 소비 전망

식량 전체 소비량은 전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량 전체 소비량은 8억 3,00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4% 증가한 8억 4,080만 톤을 기록하고, 2032년에는 8억 4,240만 톤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1% 증가한 8억 4,0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식품 소비구조 개선, 소비 식품 다원화 등으로 식용 소비량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용 소비량은 2억 7,33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5% 감소한 2억 6,986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4% 감소한 2억 6,70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사료용 소비량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돼지 생산능력 조정과 가축 사육 효율성 제고로 사료 소비 증가세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사료용 소비량은 3억 8,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5% 증가한 3억 8,950만 톤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2% 증가한 3억 8,84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정밀가공과 식품 가공업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공용 수요도 일정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2026년 가공용 소비량은 1억 2,88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1.3% 증가한 1억 3,94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6% 증가한 1억 4,66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3. 무역·가격 전망

향후 10년간 중국 내 식량 생산과 수요 간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식량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사료용 수요가 여전히 많고 국내 가격 대비 국제 식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감소세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식량 수입량은 1억 4,20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2.4% 감소한 1억 3,497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9% 감소한 1억 1,4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수출량은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며, 2026년 식량 수출량은 517만 톤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91.1% 증가한 64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9.4% 증가한 83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식량 수급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국제시장에 의한 변동 요인이 제한적이어서 큰 폭의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CAMES 식량 가격지수는 약 101을 유지할 전망이다.

3. 벼(쌀)

2025년 벼 파종면적은 2,901만 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단수는 7,200kg/ha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억 904만 톤을 기록했다. 벼(쌀) 소비량은 2억 1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쌀 수입량은 314만 톤(조곡을 정곡으로 환산 시 70%의 수율을 적용)으로 전년 대비 89.6% 증가했고, 수출량은 172만 톤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했다. 벼의 평균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향후 10년간 생산량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고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벼(쌀)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2,901	2,884	0.6	2,820	-2.7	2,759	0.5
	단수(kg/ha)	7,200	7,215	0.2	7,305	2.0	7,515	0.5
	생산량	20,904	20,802	-0.5	20,602	-0.8	20,730	-0.2
소비	총소비량	20,110	20,093	-0.1	19,540	-2.6	19,400	-0.3
	- 식용	15,530	15,469	0.4	14,951	-2.8	14,880	-0.4
	- 사료용	1,650	1,679	1.8	1,701	6.6	1,538	-0.4
	- 가공용	1,770	1,795	1.4	1,834	5.8	2,015	1.5
	- 종자용	130	130	0.0	128	-20.0	127	-2.3
	- 기타·손실	1,030	1,020	-1.0	925	-10.8	840	-2.1
무역	수입	449	434	-3.3	342	3.4	136	-9.1
	수출	246	350	42.3	506	138.7	600	11.0
재고량		997	793	-20.5	899	-11.1	866	-1.5
가격(위안/kg)		-	2.68~2.90	-	-	-	-	-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3.1. 생산 전망

중국 정부 차원에서 벼 최저 수매가격의 합리적 설정, 경작지 지역 보호 보조금과 벼 보조금 제도 실시, 벼 보험 강화 등의 우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고 재배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파종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6년 벼 파종면적은 2,884만 ha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7% 감소한 2,820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0.5% 감소한 2,759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맞춤형 이앙기 보급, 드론 등의 스마트 농기계 응용, 집중 육묘, 적정량 파종 등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 보급, 우량 품종 개발을 통해 벼 단수를 제고할 것이다. 2026년 벼 단수는 7,215kg/ha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0% 증가한 7,305kg/ha, 2035년에는 연평균 0.5% 증가한 7,515kg/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파종면적이 안정적인 가운데 소폭 감소하고 단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벼 생산량은 2억 600만~2억 8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벼 생산량은 2억 802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8% 감소한 2억 603만 톤, 2035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2% 감소한 2억 73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3.2. 소비 전망

2026년 벼 전체 소비량은 2억 9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6% 감소한 1억 9,540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3% 감소한 1억 9,4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증대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소비구조가 다원화되고 1인당 평균 식용 벼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며, 인구 고령화 심화와 전체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식용 벼 총 소량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2026년 식용 벼(쌀) 소비량은 1억 5,46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8% 감소한 1억 4,951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4% 감소한 1억 4,8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공용 쌀은 주로 쌀가루와 쌀국수, 주정, 쌀 시럽 생산에 사용되며, 건강한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정용 쌀 소비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쌀가루와 쌀국수 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시장을 넓히고 있고, 쌀 시럽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영역에 널리 응용되면서 가공용 쌀의 전체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가공용 쌀 소비량은 1,79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5.8% 증가한 1,83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5% 증가한 2,01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에 사료용 쌀 소비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밀과 옥수수에 비해 쌀의 사료 효율이 낮고, 국가 차원에서 사료용 곡물의 효율을 높여 그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 후기에는 사료용 쌀 소비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사료용 쌀 소비량은 1,67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6.6% 증가한 1,701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4% 감소한 1,53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종면적이 감소하고 우량 신품종이 보급되며, 고표준 농지 건설, 지력 강화, 관배수조건 개선 등으로 보식 빈도가 낮아지면서 종자용 벼 수요는 안정적인 가운데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종자용 쌀 소비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130만 톤,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0% 감소한 128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3% 감소한 12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3.3. 무역·가격 전망

중국은 벼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황에서 주로 고급 향미, 특색 있는 찹쌀 등의 고품질 쌀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국의 기후 변화와 수출입 정책에 따른 국제 가격 변동이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내 우량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면서 수입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쌀 수입량은 304만 톤(벼 기준 4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4% 감소한 239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9.1% 감소한 9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우수 품질의 쌀 브랜화가 진행되면서 쌀 수출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쌀 수출량은 245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38.7% 증가한 35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1.0% 증가한 4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벼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 대비 낮은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 및 최저 수매가격 정책으로 벼 가격은 일정 수준을 2.68~2.90위안/kg 구간에서 소폭 변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비가 상승하고 고품질화, 산업화, 브랜드화되면서 벼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국내 전체 수급이 균형을 유지하여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3.4. 불확실성 요인

쌀 소비 패턴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식감이 좋고 신선하고 보기 좋고 브랜드가 알려진 고품질 쌀, 당뇨병, 심혈관질환을 완화시키는 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쌀 공급구조가 이러한 새로운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품종 전환이 지체될 경우, 우수 품질의 쌀 공급이 부족하고 일반 쌀이 과잉 공급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할 수 있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기후대에 분포하는 쌀 주산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25년 가을 중국이 태풍 피해를 받아 연해지역에서 논이 침수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병해충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엘리뇨, 라니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세계 벼 생산에 큰 피해를 초래하여 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쌀 무역과 가격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가간 전쟁과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운송 항로가 차단되고 물류비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쌀 주요 수출국의 국내 가격 조정, 식량안보를 외교의 지렛대 활용, 수출 제한, 관세와 쿼터 부과 등의 불확성 요인이 커지면서 국제 쌀 가격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대두, 옥수수, 밀의 수입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이 품목들이 국제시장의 충격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은 대체 품목인 쌀 시장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4. 밀

2025년 밀 파종면적은 2,358.2만 ha이고 생산량은 1억 4,007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밀 소비량은 1억 4,062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수입량은 3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64.4% 감소하였다. 보통 등급의 밀 연평균 가격은 2.46위안/kg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향후 10년간 밀 파종면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단수와 생산량은 증가하며,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소폭 감소하고, 수출량은 적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밀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2,358	2,347	-0.5	2,332	-1.2	2,318	-0.2
	단수(kg/ha)	5,940	5,955	0.3	5,985	1.8	6,075	0.3
	생산량	14,007	13,931	0.5	13,972	0.6	14,076	0.1
소비	총소비량	14,062	13,560	-3.6	13,684	-2.9	14,047	0.0
	- 식용	8,612	8,558	-0.6	8,440	-3.9	8,362	-0.5
	- 사료용	2,532	2,208	-12.8	2,292	-9.9	2,564	0.1
	- 가공용	1,778	1,693	-4.8	1,875	16.8	2,061	2.5
	- 종자용	595	570	-4.2	567	-3.1	563	-0.4
	- 기타·손실	545	530	-2.8	510	-11.3	498	-1.4
무역	수입	398	704	76.8	483	-46.9	411	-7.6
	수출	13	1515	15.4	14	-6.7	12	-2.2
재고량		330	1,060	221.2	757	8.8	428	-4.7
가격(위안/kg)		-	2.4~2.6	-	-	-	-	-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4.1. 생산 전망

2026년 밀 파종면적은 2,347만 ha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2% 감소한 2,332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0.2% 감소한 2,318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밀 단수는 5,955kg/ha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8% 증가한 5,985kg/ha, 2035년에는 연평균 0.3% 증가한 6,075kg/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파종면적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단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밀 생산량은 약 1억 4,000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밀 생산량은 1억 3,931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6% 증가한 1억 3,972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1% 증가한 1억 4,07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4.2. 소비 전망

2026년 밀 전체 소비량은 1억 3,5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9% 감소한 1억 3,684만 톤, 2035년에는 기준 연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4,04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인구 감소, 식생활 다변화, 식량 낭비 근절 캠페인 등으로, 2026년 식용 밀 소비량은 8,5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9% 감소한 8,440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5% 감소한 8,36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기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후기에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옥수수 생산량과 품질이 회복되어 밀에 대한 사료 원료 수요가 단기간 감소하지만, 사료용 소비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밀 사료 배합기술이 발전하고 사료기업의 밀 원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소폭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사료용 밀 소비량은 2,20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9.9% 감소한 2,292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1% 증가한 2,56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용 밀 소비량은 고량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기에는 줄다가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가공용 밀 소비량은 1,69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6.8%로 증가한 1,875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5% 증가한 2,06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용 밀 소비량은 파종면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농업기술 혁신과 재배시스템 최적화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종자용 밀 소비량은 5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1% 감소한 567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4% 감소한 56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4.3. 무역·가격 전망

우수 품질 밀의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생산량과 품질 제고, 유통시스템 개선, 비축 및 수급 조절 역량 강화로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2026년 밀 수입량은 704만 톤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46.9% 감소한 483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7.6% 감소한 41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밀 수출량은 12~15만 톤을 유지할 것이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5만 톤,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6.7% 감소한 1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2% 감소한 1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가을에 파종한 밀의 생장이 양호한 편이고, 2026년 1월부터 정책적으로 시장에 유입시키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사료용 소비 수요에 한계가 있어 2026년 밀 가격은 2.4~2.6위안/kg 수준에서 소폭 변동을 보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4.4. 불확실성 요인

2025년 겨울밀 파종기 잦은 강우로 일부 주산지의 파종이 지연되었고 겨울 전에 전체 성장세가 약한 편이었으며, 주요 생장기에도 가뭄, 홍수, 병해충 등에 의한 다양한 기후 위기가 잔존하고 있다.

AI 기술이 육종 부분에 응용되어 새로운 품종 갱신이 진행될 것이고, 옥수수, 대두 등의 재배기술 발전으로 밀의 사료 원료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상업화되면서 전통적인 밀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 밀 생산과 수요에 있어 단계적인 조정이 예상된다.

흑해지역, 호주, 미국 등 주요 생산국의 변동성, 수출 제한 혹은 관세 조정이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 수입 비용, 시장 전망이 중국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과 지역무역협정 변화는 밀의 수입 다변화 확대 및 교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5. 옥수수

2025년 옥수수 생산량은 3억 124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3억 1,8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수입량은 전년 대비 80.6% 감소한 265만 톤을 기록했다. 주산지와 소비지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각각 2.19위안/kg과 2.36위안/kg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하락했다. 향후 10년간 옥수수 파종면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단수는 점차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증가하고,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은 쿼터량 내에서 유지되고,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4,496	4,507	0.2	4,493	0.7	4,491	0.1
	단수(kg/ha)	6,705	6,735	0.5	7,050	6.7	7,275	1.0
	생산량	30,124	30,352	0.8	31,678	7.4	32,670	1.0
소비	총소비량	31,875	31,960	0.3	32,247	2.6	32,608	0.4
	- 식용	1,016	1,024	0.8	1,059	5.4	1,102	0.9
	- 사료용	22,330	22,290	-0.2	22,153	1.6	22,008	0.0
	- 가공용	7,450	7,580	1.7	8,028	6.3	8,570	1.3
	- 종자용	127	127	0.0	125	-0.8	123	-0.2
	- 기타·손실	952	939	-1.4	882	-8.6	805	-1.8
무역	수입	265	700	164.2	460	-68.2	360	-13.0
	수출	0.15	1	566.7	4	952.6	50	62.9
재고량		-1,486	-908	-	-113	-	372	-
가격(위안/kg)		-	2.2~2.5	-	-	-	-	-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5.1. 생산 전망

2026년 옥수수 파종면적은 4,507만 ha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7% 증가한 4,493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0.1% 증가한 4,491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우량의 농지·종자·농기계·재배법이 종합적으로 보급되면서 2026년 옥수수 단수는 6,735kg/ha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6.7% 증가한 7,050kg/ha, 2035년에는 연평균 1.0% 증가한 7,275kg/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파종면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단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옥수수 생산량은 3억 3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7.4% 증가한 3억 1,678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0% 증가한 3억 2,6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5.2. 소비 전망

2026년 옥수수 전체 소비량은 3억 1,9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6% 증가한 3억 2,247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4% 증가한 3억 2,60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생활 다변화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개념 확산으로 옥수수의 식용 소비 잠재성이 계속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 식용 옥수수 소비량은 1,024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5.4% 증가한 1,059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9% 증가한 1,10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전체 번식용 모돈 사육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6년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 대체육으로 양고기, 소고기, 가금육은 물론 계란, 유제품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사료용 옥수수 소비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다. 2026년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2억 2,2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6% 증가한 2

억 2,153만 톤, 2035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0% 증가한 2억 2,00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옥수수 정밀가공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가동률도 상승하여 가공용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옥수수 정밀가공업이 최적화,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되면서 정밀가공 소비 수요는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2026년 가공용 옥수수 정밀가공 소비량은 7,5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6.3% 증가한 8,028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3% 증가한 8,57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5.3. 무역·가격 전망

2025년 옥수수 수입량이 비교적 적은 수준으로 중국 내 전체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2026년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입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2026년 옥수수 수입량은 7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4.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68.2% 감소한 460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3.0% 감소한 36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 품종구조가 계속 조정되어 전문, 우량, 특색 품종의 규모화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옥수수 수출량은 1만 톤을 유지하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4만 톤과 5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에 사료용과 정밀가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수수 가격이 안정적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이고, 하반기에는 햇옥수수가 출하되면서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즉, 2026년 옥수수 가격은 2.2~2.5위안/kg 구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은 물론 물가 상승 요인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옥수수 시장가격은 변동성 속에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5.4. 불확실성 요인

극단적인 날씨는 물론 2~7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이 중국

옥수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동북 주산지의 봄 가뭄, 황회해(黃淮海)평원의 여름 가뭄과 가을 장마, 남방지역의 태풍과 홍수 등의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옥수수 생장과 발육 저하, 파종과 수확시기 지연, 병해충 발생 등을 초래하여 옥수수 생산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화학비료, 농업용 연료 등의 농자재 가격 폭등이 옥수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정치·경제·군사적 충돌 지속에 따른 수출입 관세장벽, 무역정책 변화와 공급망 붕괴가 옥수수 무역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 혁신과 실제 효과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옥수수 산업 가치사슬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우수한 농지, 종자, 농기계, 재배법 등의 기술 보급 속도, 농민의 수용력, 실제 증산 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6. 대두

2025년 대두 파종면적은 1,026만 ha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고, 단수는 2,040kg/ha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91만 톤을 기록했다. 대두 소비량은 1억 1,5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대두 수입량은 1억 1,18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향후 10년간 대두 파종면적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단수는 증가세를 보여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입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자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1,026	1,026	0.0	1,070	3.3	1,237	1.8
	단수(kg/ha)	2,040	2,055	0.7	2,310	15.1	2,610	2.7
	생산량	2,091	2,108	0.8	2,475	19.0	3,233	4.5
소비	총소비량	11,570	10,881	-6.0	10,771	-3.3	10,773	-0.3
	- 식용	1,233	1,240	0.6	1,293	3.1	1,382	1.0
	- 착유용	9,980	9,276	-7.1	9,125	-3.8	9,045	0.5
	- 종자용	74	75	1.4	78	5.7	90	2.0
	- 기타·손실	283	290	2.5	275	-15.9	256	-2.4
무역	수입	11,183	10,500	-6.1	9,036	-14.1	8,255	-2.4
	수출	10	16	60.0	20	150.0	25	12.1
재고량		1,694	1,711	1.0	719	-50.4	690	-7.2
가격(위안/kg)		-	4.0~5.0	-	-	-	-	-

주: 대두유 생산 이후의 부산물인 대두박이 사료 원료로 사용되므로 착유용 소비량과 사료용 대두박 수요량을 동일시 함.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6.1. 생산 전망

각종 직불금, 식량과 유지작물 전문 대출 이자 지원, 경종업 보험, 정부 비축 수매 등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농가 대두 재배 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대두 파종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대두 파종면적은 1,026만 ha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3% 증가한 1,070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1.8% 증가한 1,237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육종기술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개선된 농지, 종자, 농기계, 재배법이 종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대규모 면적에서 증산효과를 기대된다. 2026년 대두 단수는 2,055kg/ha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5.1% 증가한 2,310kg/ha, 2035년에는 연평균 2.7% 증가한 2,610kg/ha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종면적과 단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대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대두 생산량은 2,10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9.0% 증가한 2,475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4.5% 증가한 3,23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6.2. 소비 전망

2026년 대두 전체 소비량은 1억 881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3% 감소한 1억 771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3% 감소한 1억 77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번식용 모돈 사육두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료 배합비 개선, 축종 개량, 맞춤형 사육관리 등의 기술 보급으로 사료용 단백질 원료를 다원화하고 전환율을 제고함으로써 착유용(사료용 대두박)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 사료용 대두박 소비량은 9,2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8% 감소한 9,125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5% 감소한 9,04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10년간 두류 제조식품의 영양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한 소비개념의 확산, 식품 소비구조 개선, 대두 가공기술의 정밀화, 전체 산업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두류 제조식품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식용 대두 소비량은 1,2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3.1% 증가한 1,293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0% 증가한 1,38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두 파종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밀식재배를 장려함으로써 종자용 소비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종자용 대두 소비량은 7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5.7% 증가한 78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0% 증가한 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6.3. 무역·가격 전망

국산 대두 품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유지 함량과 단수가 모두 증가하고, 국제가격과 격차가 축소되어 국산이 수입 대두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돼지 사육두수가 조정되고 대두박 대체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업의 대두박용 수입 대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전망이다. 2026년 대두 수입량은 1억 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4.1% 감소한 9,036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2.4% 감소한 8,25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국산 대두는 국내 수요 중심으로 소비되고, 수출량은 매우 적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대두 수출량은 16만 톤이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20만 톤과 25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국산 대두 수급은 탄력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정부 비축 수매를 통해 시장가격 변동을 통제할 수 있어 국내 대두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적 소비지의 입고 가격(산둥성 보싱(博興) 입고 가격)은 4~5위안/kg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에는 국산 대두 산업의 가치사슬 연계 및 수급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국산 고품질 대두의 착유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동시에 대두 정밀가공 채널이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어 시장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6년 세계 대두 생산량 소폭 감소하지만, 시장 공급에 여전히 여유가 있고, 미국 대두 수출 채널이 점차 축소되고, 남미 대두 풍작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가격 상승 동력이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변동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무역정책 조정, 국가간 충돌 등의 우연적 요소로 인한 가격 변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4. 불확실성 요인

발생 가능성이 큰 엘리뇨 혹은 라니냐로 인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대두 주요 생산국의 단수가 감소하면 세계 대두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봄 대두 주산지인 동북지역의 생장기 집중호우, 가뭄, 가을철 냉해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국산 대두의 생산성 변동 가능성이 크다.

동북지역 봄 대두, 황회해(黃淮海)평원의 여름 대두 주산지의 파종면적이 넓어 연작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고, 대두 수확 후 부산물을 토양으로 환원하는 경작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병해충원 누적의 잠재적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 황회해평원에서는 대두와 옥수수의 복합 재배모델이 보편화되어 다식성 해충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1월 미중 무역관계가 다소 호전되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10%로 하락했지만, 2026년 미중 무역관계가 다시 긴장되면 수입 대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국산 대두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미중 무역관계가 한층 더 완화되면 수입 대두의 공급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브라질 등의 바이오에너지정책으로 인해 대두유 수요가 증가하면 대두 착유 수요가 증가하여 대두 수출량이 감소함으로써 국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7. 감자

2025년 감자 생산량은 9,2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고, 소비량은 8,548만 톤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수출량은 전년 대비 60.0% 증가한 138만 톤이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1% 감소한 2.06만 톤을 기록했다. 연평균 도매가격은 2.38위안/kg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0년간 감자 파종면적과 단수는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고, 가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수입량을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강한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표 6〉 감자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550	551	0.2	554	0.4	561	0.2
	단수(kg/ha)	16,903	17,055	0.9	17,325	-	17,370	-
	생산량	9,290	9,400	1.2	9,600	0.4	9,750	0.2
소비	총소비량	8,548	8,763	2.5	9,187	1.8	9,428	0.1
	- 식용	3,563	3,652	2.5	3,777	-16.9	3,809	-1.8
	- 사료용	484	496	2.5	493	-5.4	471	-1.0
	- 가공용	2,768	2,838	2.5	3,123	39.0	3,394	4.2
	- 종자용	793	813	2.5	841	-12.0	849	-1.2
	- 기타 소비	35	36	2.9	45	25.0	57	4.7
	손실	905	927	2.4	908	-13.4	849	-2.1
무역	수입	2	3	50.0	4	33.3	5	5.2
	수출	138	102	-26.1	108	15.6	126	3.0
가격(위안/kg)		-	2.45~2.60	-	-	-	-	-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7.1. 생산 전망

2025년 말 가격 회복과 수출 수요 증가로 2026년 감자 파종면적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551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서부와 접경지역의 농산업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 잠재력으로 감자 파종면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4% 증가한 554만 ha, 2035년에는 연평균 0.2% 증가한 561만 ha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량종자와 무병종자 보급률 제고, 물과 비료를 일괄 공급하는 재배기술 응용 확대로 2026년 감자 단수는 17,055kg/ha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17,325kg/ha와 17,370kg/h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파종면적 회복과 단수의 안정적 증가로 감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감자 생산량은 9,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0.4% 증가한 9,600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2% 증가한 9,7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7.2. 소비 전망

식품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감자 식품 가공역량 강화, 식품 소비시장 확대로 향후 10년간 중국의 감자 소비량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다. 2026년 감자 전체 소비량은 8,76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8% 증가한 9,187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1% 증가한 9,42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한 식품 소비개념의 확대, 감자 영양가치의 인식 제고로 감자를 주식과 채소 속성을 겸비한 식품으로 취급하여 가구 소비와 요식업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 식용 감자 소비량은 3,652만 톤이고,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3,777만 톤과 3,809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 가공업의 가치사슬 확대 및 기술 업그레이드, 내동 감자칩, 레저용 식품, 간편식 등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공용 소비가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2026년 가공용 감자 소비량은 2,838만 톤,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3,123만 톤과 3,394만 톤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자용 감자 소비량은 파종면적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6년 813만 톤, 2030년 841만 톤, 2035년 849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료용 감자 소비량은 사료 배합 원료의 다원화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6년 496만 톤, 2030년 493만 톤, 2035년 47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7.3. 무역·가격 전망

중국은 가공 전용 감자 품종 선발 및 육종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규모화 생산기지가 점차 안정화되고 고급 냉동 감자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026년 감자 수입량은 3만 톤을 기록하

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4만 톤과 5만 톤을 수입하여 고급 가공 원료와 우량 품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전통시장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 감자 수출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2026년 감자 수출량은 10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1% 감소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15.6% 증가한 108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3.0% 증가한 126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5년 추계 저장 감자를 소비하는 2026년 1~4월에는 전기 생산량 감소로 2025년 동기 대비 높은 가격을 보일 것이고, 5~12월에는 햇감자 출하로 공급량이 증가하겠지만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감자 연중 도매가격은 2.45~2.60위안/kg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토지 임대차 비용, 노동력 고용비와 농자재 가격의 경직성 상승으로 감자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7.4. 불확실성 요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인 날씨로 2026년 이후 봄철 돌발적인 저온과 냉해, 가을철 수확기의 극단적 강우, 서리와 냉해 피해 등의 예측 불가한 기상재해가 감자 생산량과 품질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거리 산지를 중심으로 우량 무병 종자 보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병해 방제 및 토양 개량의 기술 보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자 상품성과 가공 품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화된 저온저장 기술의 보급도 부족한 상태로 가을 수확기 많은 강우에 직면할 경우, 습도와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 환경조절 시스템을 갖춘 현대화 저장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주산지의 대규모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감자가 동남아 등지로 집중적으로 수출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의 관세정책 조정, 동식물 검역기준 제고, 수입원 대체 등은 중국의 감자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정치적 갈등, 환율 변동과 해운물류비 상승은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8. 채소

2025년 중국 채소(중국은 과일채소를 채소로 분류하지 않고 과과류(瓜果類)라는 명칭으로 과일로 분류함) 생산량은 8억 8,2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그중 상품물량은 6억 6,2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소비량은 6억 4,6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수출량과 수입량은 각각 1,593만 톤과 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6.4%와 50.2% 증가했다. 가격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가격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채소산업은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생산량, 상품량과 소비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순수출국을 유지하고, 시장가격은 안정적인 가운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채소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기준연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파종면적(만 ha)	2,383	2,393	0.4	2,333	-	2,333	-
	생산량	88,230	88,540	0.4	89,306	4.2	89,787	0.5
	- 손실량[1]	21,978	21,878	-0.5	21,353	0.6	20,570	-0.3
	- 상품량[2]	66,252	66,662	0.6	67,953	5.3	69,217	0.7
소비	총소비량	64,660	65,028	0.6	66,223	5.1	66,845	0.6
	- 신선 소비[3]	28,586	28,801	0.8	29,542	6.4	30,087	0.8
	- 가공용	14,879	15,295	2.8	16,927	17.6	18,790	2.7
	- 기타 소비[4]	6,993	7,056	0.9	7,265	7.0	7,433	0.9
	- 손실[5]	14,202	13,877	-2.3	12,490	-11.1	10,535	-2.8
무역	수입	60	60	0.0	64	41.9	67	4.0
	수출	1,593	1,695	6.4	1,886	28.1	2,017	3.2
재고량		59	-2	-103.4	-92	-198.0	421	16.3
가격(위안/kg)		-	4.8~5.0	-	-	-	-	-

주 1) 산지로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수확, 선별, 저장, 운송,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
2) 운송, 저장, 도소매 등 유통 단계 중 하나 또는 다수의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구매한 채소의 양.
3) 신선 채소 위주의 가정 내 소비 및 외식 소비.
4) 사료 등 기타 소비의 합계.
5) 구매가 이루어진 후 식용, 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5.1. 생산 전망

채소 주산지 생산 기반시설이 안정적이고, 채소 재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2025년 말 채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26년 채소 파종면적은 2,393만 ha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고, 채소 생산량은 8억 8,5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경지, 수자원 등의 생산요소 제약으로 채소 파종면적은 안정적 규모를 유지하여 약 2,333만 ha로 예상된다. 시설·장비를 갱신 혹은 개조하고, 재배구조를 시장 수요 기반, 고품질과 고효율 방향으로 개선하고, 채소 생산의 규모화, 집약화, 기계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친환경 재배기술을 확대함으로써, 2030년과 2035년 채소 생산량은 각각 8억 9,306만 톤과 8억 9,787만 톤으로 연평균 각각 0.8%와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률은 2026년 75.3%에서 점차 상승하여 2035년 77.1%를 기록할 전망이다.

8.2. 소비 전망

채소 품종은 점차 다원화되고, 신선채소의 소매 판매망이 계속 개선되고, 전자상거래와 콜드체인 물류체계가 빠르게 업그레이드됨으로써 소비자의 채소 품질, 품종, 소비 경험과 안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에 2026년 채소 소비량은 6억 5,0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간 중국 채소 소비는 총량의 완만한 증가,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품질 수요의 뚜렷한 증가, 소비모델의 혁신이라는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 핵심 추진 요인은 소비자의 채소의 안전성, 친환경 유무, 고품질, 영양·건강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이고, 고품질, 특색화, 표준화 채소 소비의 비중은 점차 상승할 것이다. 이에 2030년 채소 소비량은 6억 6,223만 톤으로 기준 연도 대비 5.1% 증가하고, 2035년에는 연평균 0.6% 증가한 6억 6,845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공용 채소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전체 채소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 23.5%에서 2035년 28.1%로 상승할 전망이다.

8.3. 무역·가격 전망

수출 측면에서 향후 10년간 국제시장의 채소 공급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

국 시설농업 발전 및 콜드체인 물류의 개선으로 채소 수출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은 제고될 것이고, 브랜화, 친환경 발전으로 산업 업그레이드가 진전되어 수출 채소의 표준화, 규모화를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 채소 수출량은 1,695만 톤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28.1% 증가한 1,886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3.2% 증가한 2,01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측면에서 향후 10년간 소비자의 채소에 대한 품종 다양성, 품질 고급화 수요가 증가하고, 특색 채소의 수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량은 증가하고 수입구조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2026년 채소 수입량은 60만 톤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에는 기준 연도 대비 41.9% 증가한 6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4.0% 증가한 6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하반기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고 연말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의 채소 재배 의향이 강해 파종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상기후 등의 불확실성 요인에 의한 공급량 변동에 따른 지역적, 단계적, 구조적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2026년 채소 가격은 4.8~5.0위안/kg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채소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장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4. 불확실성 요인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홍수, 가뭄, 우박 등의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고 강도 높게 발생함에 따라 생산시설 파손, 파종과 수확시기 지연, 운송 장애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지역적·단계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가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구도가 복잡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채소 국제무역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라는 이중적 압력을 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상태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무역 항로 차단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채소 품목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 무역 마찰의 상시화와 환율 변동 심화는 채소 수출의 종합적인 교역 비용과 가격 불확실성이 현저히 상승함으로써 중국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공동구매, 전자상거래, 유튜브 쇼핑 등 새로운 업태, 새로운 유통 모델이 나타나면서 채소산업의 기술집약형, 브랜드화,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의 원활한 연계,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 강화, 유통 효율성 제고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생산요소 투입 증가, 생산요소 가격 상승 등으로 채소 생산비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일부 중소 농가의 자금, 기술 부족으로 산업 전환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생산 효율성 제고는 느리고 품질 관리 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

9. 과일

2025년 중국 과일(목본성 과실과 수박, 멜론, 참외 등의 박과 과일을 포함) 생산량은 3.59억 톤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소비량은 3.43억 톤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과일과 그 조제품의 수입량과 수출량은 각각 1,003.37만 톤(신선과일 기준 1,454만 톤)과 689.07만 톤(신선과일 기준 1,0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6%와 4.4%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121.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5억 달러 증가했다. 6종 대표 과일(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바나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7.35위안/kg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향후 10년간 과일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입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일 가격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8〉 과일 수급 전망

단위: 만 톤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생산	재배면적 (만 ha)	과실	1,266	1,272	0.5	1,268	-	1,263	-
		박과	223	224	0.5	225	-	225	-
	단수(kg/ha)		-	21,345	-	21,915	-	22,155	2.2
	생산량		35,910	36,447	1.5	37,235	1.7	37,456	0.9

(계속)

구분		2025	2026		2030		2035	
		추정치	전망치	전년 대비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전망치	연평균 증감(%)
소비	총소비량	34,310	34,944	1.8	36,571	2.2	36,940	1.2
	- 직접 소비	16,938	17,142	1.2	17,627	1.6	17,768	0.9
	- 가공용	5,444	5,803	6.6	6,874	7.1	7,611	4.5
	- 기타·손실[1]	11,927	11,999	06	12,071	4.7	11,560	0.0
무역	수입[2]	1,454	1,556	7.0	1,964	8.1	2,405	6.1
	수출[2]	1,098	1,153	5.0	1,469	7.7	2,266	8.4
재고량		1,957	1,906	-2.6	1,159	-35.5	655	-9.6
가격(위안/kg)		-	6.0~8.0	-	-	-	-	-

주 1) 생산지에서 최종 구매 단계에 이르는 과정(수확, 선별, 저장, 운송, 도소매, 판매 등)에서 수분 유실, 부패, 변질 및 기타 불명확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수량의 감소를 나타냄.
2) 신선과일과 과일 제품의 합계이며, 과일 제품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신선과일로 환산함.
자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 정리.

9.1. 생산 전망

농업 노동력 고령화 심화, 농업자원의 정밀한 배분 등의 요인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낮은 오래된 과원 및 과수 생육에 부적합한 과원은 퇴출되고 과수 재배 공간이 더욱 과학화·합리화·집중화됨으로써, 향후 10년간 과수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산업구조가 더 최적화되고 특색 과수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시설과수 생산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6년 과실과 박과 과일(재배면적은 1,272만 ha와 224만 ha로 전년 대비 각각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0.5% 증가하며, 2030년에는 각각 1,268만 ha와 225만 ha, 2035년에는 1,263만 ha와 225만 ha로 기준 연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10년간 과실 단수는 2016년 14,843kg/ha에서 2025년 20,970kg/ha로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우량 품종 선발·육종 및 보급, 재해 저감능력 강화로 단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단수는 21,345kg/ha이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21,915kg/ha와 22,155kg/ha로 기준 연도 대비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과일 생산량은 3.64억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고, 2030년에는 연평균 1.7% 증가한 3.72억 톤, 2035년에는 연평균 0.9% 증가한 3.75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9.2. 소비 전망

향후 10년간 중국의 과일 전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공용 소비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유통·가공과정에서의 손실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과일 전체 소비량은 3.49억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2030년에는 연평균 2.2% 증가한 3.66억 톤, 2035년에는 연평균 1.2% 증가한 3.69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식품 소비구조가 건강화, 다원화, 고급화되면서 과일 소비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며, 현(縣)·향(鄉)·촌(村)급 지역의 물류배송 시스템이 개선되고 콜드체인망이 산지와 농촌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도시와 농촌에서의 우수 품질 과일 유통의 병목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소비 잠재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35년 1인당 신선과일 소비량은 127.9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과일 직접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과일 직접 소비량은 1.71억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2030년과 2035년에는 각각 1.76억 톤과 1.78억 톤으로 기준 연도 대비 연평균 각각 1.6%와 0.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일 소비 수요가 다원화되고, 가공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상품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단순 가공에서 정밀가공으로 빠르게 전환됨으로써 가공용 과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가공용 과일 소비량은 5,80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고, 국산 과일의 가공률은 15.9%이며, 2030년에는 연평균 7.1% 증가한 6,874만 톤이고, 국산 가공률은 18.5%이며, 2035년에는 연평균 4.5% 증가한 7,611만 톤이고, 국산 가공률은 20.3%일 것으로 추정된다.

9.3. 무역·가격 전망

2025년 8개국의 10여 개 신규 신선과일의 검역 승인으로 수입과일의 원산지와 품종이 늘어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관세 인하 효과, 콜드체인 물류 개선, 국가간 전자상거래 채널 확대, 국내 시장 소비 업그레이드, 열대과일과 반계절성 과일의 국산 대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과일 수입량은 1,556만 톤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2030년에는 연평균 8.1% 증가한 1,964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6.1% 증가한 2,405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품종이 다양하고 규모가 방대한 온대 과일과 아열대 과일은 뚜렷한 수출 비교우위에 있고, 과일산업의 고품질화, 지역 공동 브랜드와 우량 특색 품목군으로 수출 품목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해남(海南)자유무역항 정책, 국가간 전자상거래, 해외 창고, 직항 노선 등의 채널 다변화로 과일 수출 국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과일 수출량은 1,1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2030년에는 연평균 7.7% 증가한 1,469만 톤, 2035년에는 연평균 8.4% 증가한 2,266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 전국 6종 대표 과일의 연중 평균 도매가격은 6~8위안/kg 범위에서 계절성 변동이 나타날 것이고, 연평균 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월 출하량이 비교적 적어 저장 물량이 주로 공급됨으로써 계절성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6~10월 여름철 냉동과일, 박과 과일이 집중적으로 출하되고, 햇사과와 햇배 등의 대중과일이 대량 출하됨으로써 가격이 점차 하락하며, 11~12월 공급량과 품목 감소 및 연말 명절 소비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 생산비 상승, 품질 제고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품종구조 개선, 숙기와 출하기 조정, 저온저장기술 업그레이드, 시설 과수업의 빠른 발전, 반계절성 과일 수입, 연중 수급 조절능력 강화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9.4. 불확실성 요인

극단적인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모두 높아지는 추세로 과일 생산, 수확, 저장운송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이상기후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세계 과일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내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 국가간 병충해 전파 및 확산 위험이 점차 커지면서 글로벌 과일 생산 및 무역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이 제한적이어서 동남아, 중동 등 일부 신흥시장의 소비시장의 위축 가능성 존재하고, 국가간의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무역기술 장벽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검역과 인증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 새로운 자

유무역협정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수입관세와 시장개방 속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국가간 분쟁 및 갈등 심화로 칠레, 페루 등 국가의 과일 수출에 긴장 혹은 중단 위험이 상존한다.

과수농가의 고령화 심화, 소규모 농가의 퇴출, 과수산업의 규모화, 집약화 전환, 재배업의 혁신, 스마트기술 응용, 오래된 과원의 갱신, 공급사슬 업그레이드 등의 정책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 전환 속도, 기술 도입의 효과는 산지의 부존자원, 경영주체의 역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측이 쉽지 않다. 과일 생산력 조절 정책 및 과일 고품질화 발전 경로가 아직 탐색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산지의 시장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고 트랜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 구조적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크고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

10. 결론

전망보고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사회와 정책 등의 여건을 가정하여 정량과 정성분석을 결합하여 예측하였으며, 동 기간 경제성장은 여전히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026~2035년 중국 GDP는 2025년 대비 연평균 4.6% 증가하고,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각각 4.3%와 6.5% 증가하여 도농 소득격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연평균 1.1% 감소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증가하면서 인재 보너스 효과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35년 도시 상주인구의 비중은 75.0%에 달할 것이다. 소비가격지수(CPI)의 상승폭은 합리적인 범위를 유지하여 연간 1.0~2.5% 수준이고, 위안화 가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1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중간값은 연평균 6.6~6.9위안 수준일 것이다. 국제 원유가격의 단기 변동은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2025년 중국 농업·농촌부문의 발전이 안정적인 가운데 호전되는 추이를 유지하였고, 향촌 전면적 진흥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었으며, 농업·농촌부문의 현대화가 빨라졌다. 식량생산은 재차 풍작을 이루었고, ‘장바구니’ 상품 공급은 충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농산물 공

급구조는 계속해서 개선되었고, 농산물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구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주요 농산물 수입량은 감소했고, 전통적으로 수출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 무역은 증가했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2026년 향촌 전면적 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는 새로운 진전을 보이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의 전반적인 효능은 계속 제고되고, 농업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식량과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농업 종합 생산력과 질적 효율성 모두 제고될 전망이다. 농산물 소비는 완만히 증가하고, 소비의 새로운 업태와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농산물 무역과 생산은 더 밀접하게 연계되고, 전통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대다수 품목의 가격은 전기에 안정세를 보이다가 후기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기후 위기에 따른 생산 불안정, 국제무역 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입 장벽, 농업구조 재편에 따른 자원 수급 불균형, 신기술 도입과 현장의 대응력 부족, 소비시장 여건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농산업 전반에 상존하며,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농산물 수급의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農業農村部農産物市場分析豫警團隊(2026), 中國農業展望報告(2026-2035), 北京: 中國農業科學技術出版社.